

# 고려시대 金屬工藝의 匠人

최 응 천\*

- I. 고려 匠人の 계통과 신분
- II. 高麗 後期の 匠人社會

## I. 고려 匠人の 계통과 신분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에는 제작과 관련된 일시와 發願文, 重量 등의 명문을 새기면서 말미에 대체로 제작자의 신분과 이름을 밝혀놓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금속공예의 匠人은 지금까지 꽤 많은 수가 파악되고 있다. 자료) 高麗 工藝品에 기록된 장인 참조

이러한 고려시대 장인 가운데 범종과 반자를 만들었던 韓仲敍란 인물은 13세기 초에서 중엽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장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서가 만든 작품으로는 崇慶 2年 高嶺寺銘 飯子(1214) 도1, 靑林寺鐘(1222) 도2, 戊戌年 神龍寺銘 小鐘(1238)과 戊戌年 福泉寺銘 飯子(1238), 壬子年 安養社銘 飯子(1252) 도3 등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한중서라는 장인은 일개 壽寧宮主房의 侍衛軍이라는 말단 군사에서 출발하여 別將同正이라는 武散階 정7품 관직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 장인의 행적이 밝혀지게 되어 당시 鑄金匠

\* 국립춘천박물관장.



도 1 崇慶2年 高嶺寺銘 飯子, 고려 1214년,  
직경 38.5cm,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壽寧宮主房侍衛 同房侍衛軍仲敘”



도 3 壬子年 安養社銘 飯子, 고려 1252년,  
직경 55cm, 보물 제495호, 晉州 玉泉寺 소장  
“工人別匠同正 韓仲敘”

사회의 신분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1</sup> 남아 있는 그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 고려사 반자를 만들었을 당시를 20세 전후로 가정해 볼 때 그의 말년 작품인 안양사명 반자는 벌써 60세 고령 때의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고려 금속공예품 가운데 그의 작품만이 유독 5점이나 남아 있다는 사실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범종과 반자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였던 당대의 뛰어난 명장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동일한 撞座의 문양이 계속 사용되며 기타 부속 문양만 조금씩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금속공예의 장식 문양은 제작자가 그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제작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어떠한 母本(地文板)과 기술적 역량이 꾸준히 계승되고 독특한 형태와 그 계보가 형성되어 유존되었다고 보여진다.

한중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계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작품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금속공예품에 기록된 제작자는 그 성격상 크게 세 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sup>1</sup> 朴敬源, 「高麗鑄金匠考—韓仲徐와 그의 作品」, 『考古美術』 149호(韓國美術史學會, 1981. 3), pp.6-22 참조.



도2 靑林寺鐘, 고려 1222년, 높이 103cm,  
보물 제277호, 扶安 來蘇寺 소장  
"匠 韓仲敍"

## 1. 私匠

私匠은 일반 직업적 鑄金匠으로 간단하게 '匠' 이나 '匠人', 그리고 이름만을 밝힌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범종의 경우 11세기에 제작된 聖福寺鐘(在日)의 '工匠□□□', 그리고 安水寺鐘(1257) 도4의 '匠 有光 造'와 癸未銘 鐘(1283)의 '匠 有先 造', 貞祐13年銘鐘(1225)의 '匠 七甫'와 '匠人 朗□□'으로 기록된 戊寅銘鐘(1278) 등을 들 수 있다. 고려 말의 長興寺鐘(1392)의 '大邱 朴'은 말미에 기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대구에서 활동한 사장으로 추측된다.

金鼓의 경우<sup>2</sup> 泰和2年蒲溪寺銘(1202) 盤子 도5의 '京良工韓宗守'는 良人으로서 開京에서 활동하던 私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大德五年靑雲寺銘(1301) 飯子の '鑄匠鄭' 이나 至正4年銘(1344) 金鼓의 '造成匠洪廣大', 己酉月峯寺銘 金鼓의 '匠 黃光', 丙寅銘



도 4 安水寺 丁巳銘鐘, 고려 1257년,  
높이 49.5cm,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匠 有光 造”



도 5 泰和二年蒲溪寺銘 盤子, 고려 1202년,  
직경 34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京良工韓宗守”

金鼓의 ‘匠 洪主’ 등도 모두 私匠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乙酉興王寺銘 은입사香垵 (1229) 도6의 ‘在京金彦守造’와 乙丑月溪寺銘 향완의 ‘造納權應’, 至正2年松林寺銘 향완의 ‘崔家造’ 등이 모두 私匠에 의한 제작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의 私匠은 농촌에서 半農半工의 가내공업이 성장하여 專業으로 전환된 자, 宮延 내지 貴族의 手工業者에서 賃用勞工로 전환된 자, 歸化民으로서의 投化匠 중에서 獨立工匠으로 분화된 자들이다. 또한 이들 私營工匠들은 규정된 國家의 上番徭役 이외에 매년 常貢과 別貢의 형식으로 貢物을 상납하였던 것이며 그들 중에는 소위 工匠隊로서 兵役에 종사한 자도 있었다.<sup>3</sup>

<sup>2</sup> 여기서 金鼓란 반자와 금구, 금고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고려시대의 경우 앞, 뒤가 막혀 측면 뒷면이 넓게 트인 것은 반자(半子, 盤子, 飯子)로 앞·뒷면이 막혀 측면에 공명구를 뚫리거나 구연이 넓게 확장되어 후면을 감싼 것은 禁口나 金鼓 등으로 표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崔應天,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佛敎美術』 9집(東國大博物館, 1988. 11) pp.67-72 참조.

<sup>3</sup> 劉敎聖, 「韓國商工業史: 高麗時代의 商工業」, 『韓國文化史大系』 II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5. 12), pp.1033-1034.



도 6 乙酉興王寺銘 銀入絲香垆, 고려 1229년, 높이 38.1cm, 국보 제214호, 호암미술관 소장  
“在京金彦守造”

壬子安養社銘(1252) 飯子 도3의 ‘京師工人之家’는 바로 이러한 私匠의 집단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私匠들은 官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며, 즉 兵役을 치루는 일정기간 동안은 官匠에 소속되어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그 곳에서 제작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韓仲敍가 高嶺寺 飯子(1213) 도1를 제작할 당시에는 侍衛軍에 소속되어 兵役의 의무를 치르다가 점차 官匠으로서 자리잡아 大匠의 官職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別匠同正의 직급까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이 그의 老年에 제작한 壬子安養社銘(1252) 飯子에는 ‘京師工人之家’에서 주도된 것이라는 기록과 함께 끝 부분에 “工人別匠同正 韓仲敍”라는 제작자의 이름이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한중서 자신이 바로 ‘京師工人之家’의 私匠 출신이었다고 짐작된다.

## 2. 官匠

官匠은 大匠이나 副匠 등의 분명한 職名을 이름 앞에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大匠이나 副匠이 官匠이라는 사실은 『高麗史』 食貨志에 “武散階 田十七結 大匠副匠雜匠人, 御前部樂伴樂人”<sup>4</sup>의 기록이 분명히 보인다. 이 기록에서와 같이 大匠이나 副匠은 武散階에 속해 있으면서 國家로부터 田十七結의 祿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貞祐五5奉業寺銘(1217) 盤子 도7에서는 ‘上大匠 → 大匠 → 三大匠’의 順으로 제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大匠이 계급별로 나열된 것이라기보다 같은 일에 관계한 大匠들 사이의 序列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高麗史』에서도 大匠, 副匠, 雜匠의 녹봉규정만을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高

<sup>4</sup> 『高麗史』 卷78, 志卷32, 食貨一, 田紫科(文宗三十年更定).



도 7 貞祐五年奉業寺銘 盤子, 고려 1217년,  
직경 61cm, 보물 제576호,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色大師洪植”



도 8 戒持寺鐘, 고려 1065년, 높이 76.1cm,  
일본 福岡 承天寺 소장  
“大匠 金水 副大匠 保只, 未亭”

麗時代 官匠의 직급은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범종에서 볼 수 있는 戒持寺鐘(1065) 도8의 ‘大匠 金水 副大匠 保只, 未亭’은 이러한 관장 사회의 계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靑鳧大寺鐘(1032) 도9의 ‘大匠位 金慶則’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명문 가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장의 예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福泉寺 飯子(1245)와 安養社 飯子(1252) 도3, 貞祐11年月峯寺銘(1233) 鐘의 제작자는 ‘大匠別將同正’이라 하여 職名과 官位를 함께 사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別將同正에서의 別將은 高麗時代 京軍이나 州鎮軍 및 各領에 소속된 軍官의 職名으로서 正七品의 하급장교이다.<sup>5</sup> 그리고 同正은 正職에 준하여 설정된 散職으로 文班, 吏屬, 鄉吏, 僧官職에 전부 걸쳐 있는데, 대체로 閉職 및 初入任職의 성격을 띠고 그에 해당되는 자들이 대기하였다가 規定에 따라 實職으로 진출하게 된다. 祿俸은 없고 다만 17-25結의 田만을 취득

<sup>5</sup> 李弘植 篇, 『國史大事典』 高麗官府變遷表 (東亞出版社, 1976. 1), pp.2112-2119 및 朴敬源, 앞의 논문, p.17 참조.



도 9 靑覺大寺鐘, 고려 1032년, 높이 77.5cm,  
일본 大津市 琵琶湖文化館 소장  
“大匠位 金慶則”

도 10 至正4年 重興寺銘 銀入絲香琖, 고려 1344년,  
높이 33.4cm 보물 제321호, 동국대박물관 소장  
“銀入絲縷手中郎將 金卿”

할 수 있다.<sup>6</sup>

장인의 경우는 武散系の 직급에 따라 同正職을 수여받게 되는 것으로서 中郎將同正(正五品), 郎將同正(正六品), 別將同正(正七品), 散員同正(正八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官匠은 大匠의 관직과 함께 同正職을 명예가호로 함께 쓰게 되며 祿俸규정에는 관계없으나 그 신분상의 대우는 正職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韓仲斡는 官匠으로서 武散系인 正七品の 別將으로 진급하였으나 匠人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正職이 아닌 同正職을 수여받게 된 것이다. 月峯寺鐘(1223)의 ‘大匠別將同正 崔汶茂’, 乙巳銘鐘(1245)의 ‘別將同正 韓正’도 한중서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활동한 관장 계통의 장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月峯寺銘 金鼓의 제작자인 ‘中郎將同正都正相’과 같이 더 높은 同正職을 수여받

<sup>6</sup>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 『歷史教育』 11·12合輯(歷史教育研究會, 1969), pp.117-177 참조.



도 11 貞祐六年北禪院寺銘 飯子, 고려 1218년,  
직경 34.7cm, 湖巖美術館 소장  
“大匠元清助役孝文孝貞僧印”



도 12 至治二年藥師寺銘 禁口, 고려 1322년,  
직경 49.5cm, 일본 京都府 知恩寺 소장  
“大匠道人性郎”

은 官匠도 등장한다. 그리고 高麗末期에 이르면 至正4年 重興寺銘(1344) 도10 銀入絲香院의 縷手中郎將 金卿<sup>7</sup>의 경우처럼 同正職이 아닌 正職으로 진출한 官匠의 예도 보인다. 이것은 몽고란 이후 匠人의 수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sup>8</sup> 그에 따라 匠人의 신분이나 대우가 그만큼 격상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 3. 僧匠

僧匠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나 구별은 현재 확실치 않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승려 장

7 “至正四年五月日敬造青銅縷銀香爐一座奉獻于三角山重興寺大殿佛前將此功德用祝皇帝萬歲國王千秋天下太平同願議政承蔡河中午山郡夫人梁氏微明勸善比丘悟如眞悟戒瑠縷手中郎將金卿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群生皆共成佛道”.

8 1346년에 제작된 演福寺鐘이 元나라 匠人들에 의해 제작된 사실도 당시에 우리나라 匠人의 수효나 기술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東文選』卷49, 演福寺新鑄鐘銘并序 李穀 참조.

인의 예로는 선악사종(1066)의 '匠□□□' 과 함께 기록된 '鑄匠棟梁僧 鏡珎' 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장과 함께 주조에 참여한 승려 장인으로 짐작된다.

또한 貞祐6年北禪院寺銘(1218) 飯子도11의 '大匠元清助役孝文孝貞僧印' 은 승려들의 助力을 받아 금고를 제작한 것으로 미루어 大匠元清이 승려신분의 匠人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至治2年藥師寺銘(1322) 禁口도12의 '大匠道人性郎' 도 역시 僧匠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大匠 뒤에 쓰인 道人이라는 표현이 '棟梁道人□□' 과 같이 승려를 지칭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重林寺 飯子(1109)의 '重林寺住持顯儀大師忠祚造成' 은 현의대사인 忠祚가 이 금고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住持의 지위를 가진 忠祚가 僧侶신분의 匠人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乙酉華嚴寺銘 半子의 '大匠大德' 과 같이 大選의 시험을 통과한 大德의 僧位를 지닌 승려장인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이와 같이 寺院에 소속되어 승려신분으로 각종 기술직에 종사했던 僧匠은 官匠의 官職名과 동일한 명칭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sup>10</sup> 보다 많은 수의 승려장인들이 범종이나 金鼓, 향완 등의 제작에 참여했으리라 짐작된다.

## II. 高麗 後期の 匠人社會

고려 후기의 시작인 1231년부터 1270년까지 약 40년간에 걸친 몽고의 침입과 항쟁은 고려시대 경제, 사회 전반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미술 분야에서도 당연히 침체를 맞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분야에 따라 나름대로 꾸준히 계승, 제작되어 온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금속공예품은 우선 1250년을 기점으로 13세기 말까지 그 예가 현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부 干支銘만을 지닌 소규모의 작품이 제작되기도 하였으나 전대에

<sup>9</sup> 吉熙星, 「高麗時代 僧階制度에 對하여—특히 高麗圖經을 中心으로」, 『奎章閣』 7(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pp.31-45.

<sup>10</sup>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海印寺妙吉祥塔記(895)의 銘文 중에서도 그 제작자를 '大匠僧蘭交' 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大匠의 관위를 지닌 僧侶匠人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黃壽永,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8), pp.167-169 참조.

비해 기술적인 면에서 그 격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梵鐘과 飯子가 그러하며 香垸의 경우에도 14세기에 들어오면 다시 본격적인 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당시 공예 분야가 침체되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元나라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工人을 보내주길 요청하나 그에 대한 거절의 답변을 담은 ‘送撒里打官人書’라는 李奎報의 書簡이 그것이다. 이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工人들이 적어 모자라고 飢饉과 疾病으로 많이 죽었으며 또 貴國의 빈번한 침략으로 해를 당하여 그로 인해 흩어져 버리거나 農民이 되는 등 專業을 한 자가 많은 고로 부득이 보낼 수 없다.”<sup>11</sup>고 하여 당시에 우리나라의 工匠이 戰亂으로 인해 많은 수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 후기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이르는 금속공예품의 급격한 수요 감소와 주조기술의 퇴락은 전란으로 인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고려 후기 장인사회의 상황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범종으로서 14세기 전반의 종은 그 수요도 적을 뿐 아니라 1298년의 戊戌銘鐘이나 至治4年銘(1324) 범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3세기 종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도식화되고 불품 없는 小鐘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長安寺 위 拜帖에 姜公金剛과 辛候裔라는 두 사람의 中國 匠人을 시켜 범종을 주조한 사실이니<sup>12</sup>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만든 開城 演福寺鐘(1346) 도13은 中國匠人에 의해 만들어진 중국 범종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는 연복사의 옛 종을 만들려다 장인을 구할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장인을 초빙하여 제작케 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중국종 양식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며,<sup>14</sup> 이후 만들어지는 고려 후기 및 조선 초기의 종은 中國鐘 양식을 따르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나라의 順帝와 奇皇后가 금강산 長安寺를 重創하고 無盡燈을 발원한 내

11 “...又稱諸般工匠遣送事，我國工匠，自昔昔小，于因飢饉疾疫，亦多物故，加以貴國兵馬經由大小城堡，以懼害被驅者不少，自此耗散而莫有地着專業者，故節次不得押遣應命，此皆以實告之，伏惟諒情哀察...”，『東國李相國集』卷28，書·狀·表，‘送撒里打官人書’ 및 『東文選』卷61 書 同 제목 참조.

12 “至正丁亥 令資正院使姜公金剛，奉天子之命，來鑄大鍾，閣而懸之于帖之上，...”，李穀，「東遊記」，『東文選』卷71 記.

13 “至正丁亥 令資政院使姜公金剛，奉天子之命，來鑄大鍾，閣而懸之于帖之上”，『稼亭集』卷5，『東文選』卷71 참조. “至正六年春，資政院使姜公金剛 左藏庫副使辛候裔 奉天子之命，以金幣來鑄鍾于金剛山 時旁山諸郡 飢其民爭 趨工食生活 鍾成公將歸朝 ... (中略) ... 僉曰演福寺大鍾久廢不用 令因巧治 之來而更鑄之 亦足以體上 之意而 爲不朽之功矣 遂言之公 公欣然曰諾 輟行以成之”，『稼亭集』卷7 및 『東文選』卷49.

14 崔應天，「東文選과 高麗時代의 工藝」，『講座美術史』1호，(韓國美術史研究所，1989)，pp.157-159.



도 13 開城 演福寺鐘, 고려 1346년,  
 높이 320cm, 開城 南門樓  
 “資政院使姜公金剛 左藏庫副使辛侯裔”

용이라든지<sup>15</sup> 금강산에서 출토된 원나라 미술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二軀의 金銅菩薩坐像, 라마탑을 본뜬 麻谷寺塔의 건립과 라마탑 형식의 사리기가 채용되고 金剛杵, 金剛鈴과 같은 密教法具 및 鏡像의 유행 등 전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외래 양식이 유행된 것은 고려장인 사회에 유입된 또 다른 자극과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란 이후의 고려 후기는 기존의 전통 주조기술의 계승과 장인사회가 급격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원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자극(新樣式)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믿어진다.

15 “…自彌陀行十餘里 抵長安寺, 寺乃新羅法興王所創元朝順帝奇皇后 重創 …(中略)… 其東側有無盡燈 燈內四面皆銅鏡, 中置一燭傍立衆僧形, 乃燃燭側衆僧皆如執燭然, 亦元帝所作”, 南孝溫, 『遊金剛山記』, 『續東文選』 卷21.

자료) 高麗 工藝品에 기록된 匠人

1) 石工

普濟尊者 塔誌石 (1388년)

石手道人覺訓 盧冶道人 覺清

神勒寺普濟尊者 舍利石鐘碑 (1379년)

石手智明, 金末, 乙只 木手天一, 覺演, 覺隅, 覺清

2) 陶工

淳化4年銘 항아리 (993년)

太廟第一室亨器匠崔吉會造

青磁蓮花文瓶

照清造

青磁蓮花唐草文 淨瓶(根津美術館)

孝久刻

3) 梵鐘

古彌縣(靈巖)西院鍾(在日) (963년)

大百士

羅州只未百士

靑鼻大寺鍾(在日) (1032년)

大匠位金慶則

戒持寺鍾(在日) (1065년)

大匠 金水

副大匠保只 未亭

仙岳寺鍾(在日 今亡) (1066년)

匠□□□

鑄匠棟梁僧鏡珎

辛亥廻眞寺鍾(在日) (1071년)

者三千餘人入香徒布糧添敬造

川北觀世音寺鍾(在日) (1107년)

大匠□

先等

善慶院鍾(在日) (1206년)

金魚袋金躍

浦項 吾魚寺銅鍾 (1216년)

大匠 順光 造

靑林寺鍾 (1222년)

匠 韓仲敍

月峰寺鍾 (1223년)

大匠別將同正雀汶菴

貞右十三年銘銅鍾 (1225년)

匠七甫

安水寺 丁巳銘鐘 (1257년)

匠有光造

文聖庵鍾(在日) (1324년)

大匠崔□

長興寺鍾 (1392년)

大丘朴

聖福寺鍾(在日) (11세기)

工匠□□□

戊戌銘銅鍾 (1238년)

大匠信

仇十周□□

戊戌銘神龍寺小鍾 (1238년)

大匠韓仲敘

己亥銘頭正寺銅鍾 (1239년)

鍾成大匠斧(?)道

乙巳銘銅鍾 (1245년)

別將同正韓 正

己酉銘五聖寺小鍾 (1249년)

刻□□

扶餘博物館小鍾

大匠金守

甲寅銘生千寺小鍾 (1254년)

公州左京 大匠(?)

戊寅銘小鍾 (1278년)

匠人

朗□□戊寅十月 日

癸未銘鍾 (1283년)

匠有先造

4) 金鼓

三角山重興寺鈸子 (1103년) 직경 35.7cm

大匠盧玆謹記

衆林寺 半子 (1109년) 직경 32.2cm

重林寺住持顯儀大師忠祚造成

正豐五年 楊等寺 半子 (1160년) 직경 35.8cm

大匠良且李申等

大定二十三年 屈石寺 金鼓 (1183년) 직경 33.6cm

大匠義成

泰和貳年 半子 (1202년) 직경 33cm

寺主重大師文損大匠祢問

泰和二年 蒲溪寺 盤子 (1202년) 직경 34cm

此寺京良工韓宗守

崇慶二年 高嶺寺 飯子 (1213년) 직경 38.5cm

壽寧宮主房侍衛 同房侍衛軍仲敘

貞祐四年 半子 (1216년) 직경 33cm

大匠

貞祐五年 奉業寺 반자 (1217년) 직경 61cm

上大匠夫金大匠阿角三大匠景文都色大師洪植

貞祐陸年 北禪院寺 飯子 (1218년) 직경 35cm

大匠元清助役孝文孝貞僧印

貞祐十二年 利義寺 飯子 (1224년) 직경 33,5cm

大匠仁天庄尖

戊戌年 福泉寺 飯子 (1238년) 직경 39cm

鑄成者別將同正 韓仲敘

壬子年 智異山安養社 飯子 (1252년) 직경 55cm

工人別將同正韓 仲敘

大德五年 靑雲寺 飯子 (1301년) 직경 38cm

鑄匠鄭

至治二年 藥師寺 禁口 (1322년) 직경 49,2cm

大匠道人性令(氣)

至正四年銘 金鼓 (1344년) 직경 32,5cm

造成匠洪廣大

戊戌年 觀音寺 金鼓 직경 26,3cm

丙戌十一月大匠老

己巳年 回陽寺 飯子 직경 38,5cm

改造大匠仍久三

己酉年 思惱寺 半子 직경 48,5cm

大匠金先造

乙酉年 華嚴寺半子 직경 45,5cm

大匠大德

丙寅年 金鼓 직경 29,8cm

匠洪主造

乙酉年 月奉寺銘 金鼓 직경 56,0cm

中郎將同正都正相匠黃光等鑄

#### 5) 香爐

金山寺 香垵 (1178년)

同正康信鑄成高正

己丑 興王寺 香垵 (1229년)

在京金 彥守造

松林寺 香垵 (1342년)

崔造

表訓寺 香爐 (1368년)

入絲匠徐勉造

法泉寺 燔口

信懷等五人造成

靑銅香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參知政事 崔 造上

6) 舍利器 및 바라

至大3年銘 舍利塔 (1310년)

造人 李奇

鈇羅 (高麗)

全廷造

7) 元 工匠

『高麗史節要』(1276년)

公主將修宮室, 請工匠于元

『高麗史節要』(1277년)

元木匠提領盧仁秀使張舜龍

『高麗史』(1281년)

造成都監灰, 時請元木匠, 以修宮室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海州牧 佛宇條 神光寺

在北崇山, 至正二年 元帝稱爲願刹, 遣太監宋骨兒, 率工匠三十七人

『稼亭集』卷5, 『東文選』卷71

至正丁亥 令資政院使姜公金剛, 奉天子之命, 來鑄大鍾, 閣而懸之于岾之上

『稼亭集』卷7, 『東文選』卷49

至正六年春, 資政院使姜公金剛 左藏庫副使辛侯裔 奉天子之命, 以金幣來鑄鍾于金剛山 時旁山諸郡  
飢 其民爭趨工得食生活 鍾成公將歸朝 …(中略)… 僉曰演福寺大鍾久廢不用 令因巧治之來而更鑄之  
亦足以體上之意而爲不朽之功矣 遂言之公 公欣然曰諾 輟行以成之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豐德郡 佛宇條 敬天寺

晉寧君姜融, 募元朝工匠, 造此塔

『高麗史』(1369년)

時 王召元朝梓人元世于濟州, 使營影殿

『東國李相國集』卷28, 『東文選』卷61 書 送撤里打官人書

…又稱諸般工匠遣送事, 我國工匠, 自昔昔小, 于因飢饉疾疫, 亦多物故, 加以貴國兵馬經由大小城堡, 以擢害被驅者不少, 自此耗散而莫有地着專業者, 故節次不得押遣應命, 此皆以實告之, 伏惟諒情哀察…

\* 주제어(key words): 韓仲敍(Han Jung-seo), 別將同正(Byeoljang Dongjeong), 私匠(Private Craftsmen), 官匠(Government Craftsmen), 僧匠(Buddhist Priest Craftsmen), 演福寺鐘(The Temple Bell in Yeonbok-sa)

ABSTRACT

## Craftsman in Metals in the Goryeo Dynasty

Choi Eung-chon\*

Metallic craft works from the Goryeo Dynasty generally are engraved wi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manufacturing such as date, prayer and weight as well as the social standing and name of the manufacturer. A fairly many craftsmen in metals have been identified until now.

Among Goryeo craftsmen, Han Jung-seo (韓仲敘) who made temple bells and temple gongs is known to have been most active from the beginning to the middle of the 13th century. He started his career as a minor guard of Sunyeong Palace but was promoted high up to a senior official of the 7th rank called Byeoljang (別將) Dongjeong (同正) at Musangae (武散階). His life history provided a decisive clue to the study of the social standing of cast-metal craftsmen in his days. Except Han Jung-seo's, there is no work remained that shows the genealogy of the same manufacturer. However, craftsmen recorded in Goryeo metallic craft works are largely grouped into three classes.

Private craftsmen are general professional metal-cast craftsmen, who were recorded simply as 'Craftsman (匠, 匠人)' or by name. Private craftsmen in the Goryeo Dynasty were professional grown from half-agricultural and half-industrial domestic business at farm villages, employed craftsmen who had been aristocratic craftsmen in the royal court,

---

\* Director, Chuncheon National Museum.

or independent craftsmen from naturalized. In addition, every year these private craftsmen paid tributes in the form of regular tributes and special tributes in addition to being on duty 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mong them, some engaged in military service as members of so called 'Craftsmen Unit (工匠隊)'.

Government craftsmen means those who had definite official title such as 'Daejang (大匠)' or 'Bujang (副匠)' in front of their names. Daejang and Bujang were definitely government craftsmen according to a record in *Sikwhaji* (食貨誌) of *Goryeosa* (高麗史), "武散階 田十七結 大匠副匠雜匠人, 御前部樂伴樂人." As the record, Daejang or Bujang belonged to Musangae(武散階), receiving 17 *gyeols* (結) of field as payment from the government. Craftsmen were granted posts of Dongjeong such as Jungrangjang Dongjeong (中郎將同正, 5th rank), Rangjang Dongjeong (郎將同正, 6th rank), Byeoljang Dongjeong (別將同正, 7th rank) and Sanwon Dongjeong (散員同正, 8th rank) according to their rank in Musangye. That is, government craftsmen used the official title of Daejang as well as the honorary title of Dongjeong, and treatment for them was the same as that for regular officials although equivalent payment was not offered.

There are not many records or evidence on Buddhist priest craftsmen. The most definite example of Buddhist priest craftsman is 'Metal-cast Dongryang (棟梁) Priest Gyeongjin (鏡珍)' who was recorded with 'Craftsman' on Seonak-sa temple bell (1066). He is considered to be a Buddhist priest craftsman who cooperated with private craftsmen for metal casting. Buddhist priest craftsmen who belonged to temples and engaged in various technical job in this way appears to have the same official title as government craftsmen, and it is assumed that a fairly large number of priest craftsmen might participated in manufacturing temple bells, temple gongs and incense vessels.

Mongolian invasion and resistance for around 40 years from 1231 to 1270 at the beginning of the late Goryeo Dynasty was a disastrous accident that brought about comprehensive impoverishment to all areas including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arts of the Goryeo Dynasty. Although some areas steadily continued to inherit traditional techniques and create works, metallic craft works from the period between 1250 and the end of the 13th century are significantly rare compared to other periods. The rapid decrease of demand for metallic craft works and the degeneration of casting technique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13th century to the early 14th century in the late Goryeo Dynasty hints the situation of the collapsing craftsmen society of the late Goryeo Dynasty resulting from wars. Such a situation is clearly evidenced by temple bells. There are only a small number of temple bells from the early 14th century. Furthermore they are featureless and unattractive small bells such as Musul (戊戌) temple bell in 1298 or Jichi 4th Year temple bell (1324), which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bells in the 13th century.

As discussed above, the traditional casting technology and the craftsmen society could not escape a rapid collapse after wars in the late Goryeo Dynasty, but the adversity is believed to have provided an opportunity to accept actively new styles imported from Yuan Dynasty.